亞문화전당 '5월 공간' 내달 확정

상무관·옛 도청 민원실 리모델링 방향 결정될 듯

김갑수 정책관 밝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전당 내 보존건물인 상무관, 옛 전남 도청 민원실, 경찰청 본관 건물의 리모델링 방향이 다음 달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관광체육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김갑수 정책관은 8일 옛 전남도청 민원실에서 열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5·18항쟁기념관 조성을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 전당 건립 계획과 관련, "이미 설계를 마친 문화전당 건물과 별도로 상무관, 옛 전남도청 민원실,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 하기 위한 설계가 완료돼야 하며, 6월까지는 대략적인 방향성이 구체화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5·18기념관이 주변의 문화전당과 연계성을 갖지 못하면 일개 기념관에 머무르며 고립될 것"이라며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지만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5·18항쟁기념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주제로 사업주체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정호기(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연구소) 교수는 발제에서 "5·18에 대한 평가와 기억은 지금의 지위를 상실하고 이를 부정하는 입장과 다시 기억투쟁을 전개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억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5·18은 아직도 치열한 전장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최호근(고려대 역사연구소) 교수는 "전국 곳곳의 기념사업들이 드러낸 문제들은 '넘치는 기념, 빈곤한 기억'이라는 문장으로 표현된다"며 "이는 기념사업 주체에 대한 뚜렷한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 자리에서는 김재석(광주경실련 사무처장), 허달용(광주민예총 회장), 박홍근(나무심는건축인 모임·건축설계사) 유종성(광주시 민주정신 선양과장)씨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효사랑 데이 어버이날인 8일 광주시 남구 진월동 푸른길공원에서 열린 '효사랑 데이' 행사 도중 노인들이 가수 현숙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남구청은 매월 8일을 '효사랑 데이'로 지정해 노인들에게 한방·치과 진료와 발마사지 등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광주지역 112 신고전화 10건중 4건

범죄 상관없는 민원·장난전화

광주지역 112 신고전화 10건 중 4건이 범죄와 상관없는 생활민원, 허위·장난전화로 나타났다.

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3월 말 현재 광주지역 112 센터에 접수된 신고전화는 총 3만6천3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천963건) 감소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만4천191건(38.7%)은 생활민원, 835건(2.3%)은 허위·오인신고로 실질적인 경찰 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非)범죄 신고들로 파악됐다.

또 형사범은 9천275건(25.3%), 교통사범은 7천814건(21.3%)으로 감소 추세인 반면 생활민원과 허위·오인신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불필요한 신고전화에 따른 공권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신고를 자제시키는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성 전화나 허위·장난전화는 인력과 장비의 낭비는 물론 강력 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초동조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주열 열사 성화 17일 광주 도착

5·18 추모제 합류…전야제 봉송

1960년 4월11일 경남 마산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 열사의 성화가 5·18 기념일을 맞아 광주에 도착한다.

8일 전북 남원의 김주열 열사 추모사업회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경남 마산에서 채화돼 남원으로 옮겨진 김 열사의 성화가 5·18 기념일을 하루 앞둔 오는 17일 광주로 봉송된다.

추모사업회는 1960년 당시 김 열사의 시신이 인양된 마산 중앙부두에서 성화를 채화, 도보 행진으로 남원까지 옮겨 현재 김 열사의 묘역에 안치해둔 상태이며 오는 15일 광주로 봉송할 계획이다.

성화는 추모사업회 회원들의 릴레이 봉송으로 오는 17일 오전 광주에 도착해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 유족회 주관으로 열리는 추모제에 합류한 뒤 이날 저녁 동구 금남로에서 열리는 전야제 장소로 봉송된다.

추모사업회와 5·18 기념재단 등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 열사의 성화가 광주에 도착하면 한국 민주화의 중요한 계기를 이룬 4·19와 5·18이 한 곳에서 만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모사업회 관계자는 "성화가 오는 17일 광주에 도착한다는 일정만 잡아둔 상태이며 광주에서의 구체적인 행사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다"며 "김 열사 성화 봉송으로 4·19와 5·18을 연결하고 내년에는 6·10 민주항쟁까지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폐교활용 문화학교 만들자"

광주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주인인 시민들은 소외되고 있다. 이에 광주·전남행복발전소는 8일부터 호남대 학교기업 (Himec)세미나실에서 '아시아 문화도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문화수도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열린 마당이다.

광주·전남 행복발전소 '문화수도 만민공동회'

시민들 다채로운 아이디어 쏟아져

"광주의 문화를 알려주는 문화학교를 설립하자." "동네 문화지도를 만들자."

8일 열린 '아시아 문화도시 만민공동회'에서는 문화중심 도시조성에 관한 시민 발표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시민 김옥씨는 '문화관광 일자리 창출제안' 발표문에서 폐교가 된 초등학교, 기타 공공 공간을 리모델링해 '문화학교'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김씨는 문화학교 운영 프로그램으로 광주와 남도의 전통 문화·예절교육, 체험 및 답사 프로그램 등을 채택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어 "문화관광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축제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분석, 축제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 이해정씨는 '신나는 광주 버스투어'라는 발표문을 통해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도심 투어를 즐길 수 있도록 시티 버스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씨는 외지인들이 한정된 시간과 저렴한 비용으로 광주 도심 곳곳을 살필 수 있다는 장점도 소개했다.

그는 실제 시티투어 코스로 광주항쟁 중심지를 둘러보는 '5·18 여행', 광주향교·양림동 일대 문화권을 포함한 '아시아 문화교류권' 코스 등을 제시했다.

이춘석씨는 주민들이 '우리동네 문화알리미'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삶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문화 알리미'로 나서 외지인들에게 독특한 동네문화를 홍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우리 동네 문화그림지도'를 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각 동이나 마을 단위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유래와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문화 그림지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광주, 제3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라는 발표를 한 조용선씨는 광주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톨게이트와 주요 관문에 문화도시 광주를 상징하는 관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주의 경우 톨게이트에 '호남제일문'이라는 대형 현판을 걸어 전주를 알리고 있다며 광주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라는 상징적인 관문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막을 올린 만민공동회는 9일, 13일 오후 2~5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광주전남행복발전소는 토론회 발표 내용을 모아 '행복 총서 시리즈'를 발간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새끼 벵갈호랑이 보러 오세요

우치동물원 11~12일 깜짝 공개

지난달 21일 태어난 광주 우치동물원의 벵갈호랑이가 11~12일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인다.

광주시 우치동물원은 8일 "사육 중인 벵갈호랑이가 지난달 분만한 새끼 호랑이 한 마리를 오는 11~12일 관람객들에게 임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동물원측은 "면역력이 약한 새끼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해 출산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인공포육(어미와 새끼를 분리하여 사람 손으로 키우는 것)에 전념하고 있으며, 시민들과 새끼 호랑이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잠시 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동물원측은 아울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름도 지어줄 계획이다.

어미인 아롱이(6세)는 출산 후 식자증(폐쇄된 공간에서 사육되고 있는 맹수들이 출산 후 새끼를 물어 죽이는 현상)을 보여 동물원측은 어미와 새끼를 분리, 사육사와 수의사로 하여금 새끼를 돌보도록 하고 있다. 태어날 당시 1kg이었던 새끼 호랑이의 몸무게는 보름이 지난 현재 2.5kg으로 늘어났고 이제 막 눈을 떠 사물에 대한 인지를 시작하는 단계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우치동물원 AI 예방 총력

광주 우치동물원이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일 우치동물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광진구청 자연학습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대공원과 어린이 대공원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를 살 처분하고 전시장을 폐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현재 우치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동물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된 조류는 청둥오리·오골계·황금계 등 49종 342마리로 최근 분비물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이상 없음'을 통보받았다.

동물원측은 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해 관람객 입장 시 신발 등을 소독하고 차량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